



죽음 임박했던 중년여성, 새 심장달고 '희망 돛' 활짝

심장이식 성공한 안암병원, 최근 2년간 장기이식 86건 시행해 랜드마크로 부상



앞줄 왼쪽부터 흉부외과 정재승 교수, 심혈관센터 심완주 교수, 박화자씨, 흉부외과 신경 교수, 장기이식센터장 김동식 교수

14년동안 심장병으로 고생하던 박화자 씨(52, 가명)가 최근(지난해 12월 23일) 뇌사자의 심장을 이식을 받고 새 삶을 얻었다.

흉부외과 신경,정재승 교수 심장이식 성공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심장수술팀의 신경·정재승 교수는 “심장이식 만이 박화자씨의 생명을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약 일년정도 기다렸지만 적합한 기증자가 발견되어 다행이었고 수술도 성공적이었다. 한달정도 입원하고 재활을 거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박화자씨의 병명은 울혈성 심부전으로 1998년부터 치료를 시작했으나 심장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었다. 이 병에 걸리면 심장이 점차 기능을 잃으면서 폐나 다른 조직으로 혈액이 모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혈액이 폐나 간 등 다른 기관으로 역류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박화자씨의 주치의로 14년간 병세를 지켜본 심혈관센터 심완주 교수는 “한 환자를 10년 이상 보게되면 의사나 환자 하나같이 가족으로 느낀다. 박화자씨가 심장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보니 더없이 기쁜 맘이 든다” 고 말했다.

심장이식팀 출범, 장기이식 본 궤도 올라

고려대 안암병원은 2008년 2월 뇌사판정대상자관리 전문기관(HOPO)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장기이식이 활성화 된 2009년 3월부터 최근 2년간 신장이식 74건, 간이식 10건, 심장이식 2건 등 총 86건을 시행해 연간 40건이 넘어, 서울지역에서 6위권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장기이식 분야에서 본궤도에 오른 안암병원은 심장이식팀 출범과 함께 새 역사를 써 가고 있다. 안암병원은 장기이식활성화를 통해 수술 잘 하는 병원으로 부상하는 한편 대학병원이 감당해야할 중증도 위주의 치료를 통해 병원브랜드 파워를 키워가고 있다. 장기이식수술건수가 늘어감에 따라 ‘수술잘하는 병원’으로 도약해 톱클래스 의료기관으로의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는 평을 원내·외로부터 받고있다.



사진 왼쪽부터, 심장이식을 집도한 흉부외과 신경 교수, 정재승 교수, 4년간 박화자 씨를 진료한 심혈관센터 심완주 교수

‘최첨단 암치료의 진화’, 토모테라피 업그레이드

선형가속기 치료 환자에게도 확대 적용가능, 몸체 360도 회전, 방사선 집중치료



고려대 안암병원의 최첨단 암치료기 토모테라피가 다시 한번 진화를 통해 보다 암환자들에게 보다 정밀한 치료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안암병원 토모센터는 몸체를 360도 회전시키면서 적은 양의 방사선만으로 암조직만을 집중치료하는 토모테라피에 최근 토모다이렉트를 도입해 업그레이드 했다. 안암병원이 도입한 토모다이렉트는 기존 토모시스템에 새롭게 추가되는 치료방식으로, 새로운 유형의 세기조절방사선치료 및 선택적 3차원입체조형방사선치료 모드가 업그레이드 됐다. 360도 회전하면서 입체적으로 암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후 방사선빔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 암의 크기와 모양에 관계없이 치료하고자 하는 암의 위치 및 정상조직의 위치, 세세한 변화까지도 정확히 확인한 후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매우 높다.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토모테라피는 전립선암, 폐암, 간암, 혈액종양, 직장암, 자궁암, 코 인두암 모든 암에 적용가능하다. 척추종양과 뇌종양, 두경부암, 전신 원발성암, 안구종양, 전이암, 재발된 종양 등 체내구조가 복잡한 부분에 발생한 암 치료에도 효과가 높다. 때문에 기존 선형가속기로 치료받던 환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암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토모다이렉트 치료는 약 10분내외의 치료계획과 2분내외의 방사선조사로 치료가 끝나는 등 치료시간이 기존보다 대폭 단축된다. 정상조직이 받게 되는 방사선 조사량도 대폭 줄이면서 환자들의 치료효과를 더욱 높이고 불편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 방사선종양학과 02)920-5516

거액의 기부금

10.12.08	이흥근	₩ 10,000,000	10.10.01	이동일	₩ 2,000,000
10.12.15	김준석	₩ 20,000,000	10.10.15	교우회장학금(오유환외)	₩ 16,400,000
10.12.16	신상훈	₩ 10,000,000	11.01.25	조국형	₩ 1,000,000
10.12.17	김경진	₩ 5,000,000	11.01.25	이준섭	₩ 2,000,000
10.12.22	박병찬	₩ 3,000,000	11.01.25	이상덕	₩ 10,000,000
10.12.23	김용해	₩ 100,000	11.01.25	정도광	₩ 10,000,000
10.01.04	유영	₩ 100,000,000	11.01.25	이용배	₩ 10,000,000
10.11.13	박범진	₩ 5,000,000	11.01.31	정도영(44회 동기회)	₩ 2,000,000
10.11.13	이문수	₩ 30,000,000	11.02.08	의과대학 19회 동기회	₩ 64,053,551

* 기간 : 2010년 12월 08일~2011년 02월 08일, 순서는 기부(약정) 일자 기준임



고려대 안암병원은 JCI 인증을 획득한 세계가 인정한 가장 안전한 병원입니다.

천막생활 1년째 아이티 주민들, “제발...제발, 다시 와달라!”

[특 집]

응급수술 등 20여건 시행, 6일간 2천여명 치료성과 이뤄



설 연휴를 통째로 반납한 의사8명을 포함한 18명으로 구성된 한국의 해외의료봉사단이 ‘슬픔의 땅’ 아이티에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고 2월 7일 새벽4시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1월 28일 인천공항에서 발대식을 갖고 아이티로 출국한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 ‘아이티 해외의료봉사단’ (단장 박관태)은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6일간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에스포일병원과 아이티내 콜레라 진료지로 추정되는 장소들을 중심으로 3개 팀으로 나누어 콜레라를 비롯한 외상환자 2,000여명을 치료하고 돌아왔다.

아이티에 큰 인술남긴, 고대의료원 의료봉사단

콜레라가 창궐해 감염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아이티 현지는 각종 전염성 질병의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하루에 수백명씩 몰려드는 환자들과 하루 종일 대화하고 처방하는 의료진들은 물론, 약사, 간호사도 자신들의 건강조차 담보하기 어려웠다. 진료 둘째날엔 사고로 유

산한 사산아를 몇 달 동안이나 몸속에 방치한 산모사례가 발견되어 충격이었다. 임신 2개월이었던 이 산모는 2010년 12월 낙상으로 인해 유산했으나 2개월동안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사산아를 그대로 몸속에 담고 다녔다. 봉사단은 긴급히 사산아를 적출하는 응급수술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입원조치 했다. 또한, 1년전 대지진으로 부상당한 다수의 골절 환자가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깊어진 환자들도 매우 많았다. 특히, 1년이상 천막생활을 한 현지인들은 낮은 영양상태와 보건의식으로 주민들의 건강상태가 나빴고,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민감해져 의료봉사팀의 신변을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려대의료원 의료봉사단은 위생상태가 불량한 난민 캠프와 판자촌 등 빈민촌에도 이동진료를 펼쳐 각종 질병 및 탈진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전염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의료봉사단은 1월 30일 진료첫날 포르토프랭스에 도착해 소아환자와 콜레라 환자 진료를 시작해 콜레라 감염자를 비롯한 120명의 환자를 치료했으며, 이후, 임시로 차려진 진료소에는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로 가득찼다.

아이티, 콜레라 창궐해 위기상황 계속

몰려드는 환자들 대부분은 의료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었다. 숨가쁘게 진행된 ‘아이티, 사랑의 코리아 병원’은 날이 갈수록 환자가 더욱 몰려들어 둘째날에는,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에스포일병원 콜레라센터에서 60명, 내과에서 150명, 소아과 100명 등 2일간 440명의 외래환자를 치료했다. 이후 매일 300여명 이상의 환자들을 치료해 나갔다. 확산되고 있는 콜레라를 잡기위해 아이티 의료봉사단은 현지 진료소와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이뤄나가 윈스탑치료 중심의 의료봉사활동을 펼쳐 효과를 높여 나갔다. 하지만, 낮은 보건의식으로 환자들의 상처조직이 부풀어 올라 종양과 지방종으로 발전한 케이스가 많았다. 이에, 의료진은 국소마취를 시행, 20여건의 각종 외상 및 탈장 수술을 응급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의료봉사단은 대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모여사는 고아원을 방문해 내·외과적인 치료를 실시했는데,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병원과 연계해 적극적인 치료를 실시하기도 했다. 의료봉사단은 한국에서 공수해간 초코파이를 현지 주민들에게 나눠주자 아이티 주민들은 크게 반겨하기도 했으며, 이번 의료봉사에 동참한 마술사이자 고려대의료원 홍보대사인 이은결씨는 현지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다양한 마술쇼와 문화행사를 진행해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전립선비대증, 레이저로 ‘말끔’

[스페셜 리포트 1]

비뇨기과 이정구 교수, 新의료기술 홀렙수술 주도 합병증 거의 없고 회복 매우 빨라, 단 하루만에 퇴원 가능



비뇨기과 이정구 교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를 호소하는 남성들이 급증하면서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신의료기술 인증을 받은 홀렙수술은 전립선 비대증의 표준적 수술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홀렙수술은 기존의 방법에 비해 획기적인 수술방법으로 합병증 발생률이 낮고 회복이 매우 빠른 것이 큰 장점이다. 홀렙수술은 홀뎀 레이저로 전립선을 감싸고 있는 막과 비대해진 전립선 사이를 통째로 분리해 몸 밖으로 제거하는 내시경수술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

고려대 안암병원 비뇨기과 이정구 교수는 “홀렙수술은 마치 잘 익은 귤의 껍질을 벗겨내어 귤내용물만 빼내는 방식과 같으며 전립선 피막면은 혈관의 공급이 없는 무혈부위로써 이 부분을 박리시에는 무혈수술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레이저로 조직을 응고시키면서 전립선을 벗겨내므로 수술도중 출혈과 통증이 거의 없으며 입원기간도 짧아 보통 수술 바로 다음날 퇴원할 수 있다. 또한, 개복수술과 마찬가지로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 재발이 거의 없고, 제거한 전립선 조직으로 전립선 암 여부까지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이정구 교수는 “홀뎀레이저 장비와 정교한 수술기법의 도입으로 기존의 수술이 어렵던 환자들도 1회 수술로서 완치가 가능하다”며, “홀렙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 후 매우 만족도가 높고 이를 주변에 소개하는 일이 많으며 배뇨기능적 측면에서도 다른 수술과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립선비대증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술법이다. 지금까지는

개복이 필요했던 100g이상의 매우 큰 전립선비대증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보험 수가가 정해지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낮아졌다. 약물치료에 의존하는 환자들의 경우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비해, 1년 정도 복약 비용이면 홀렙수술로 깨끗하게 완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홀렙수술은 ‘홀뎀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적출술’의 명칭으로 지난 98년 Dr. Gilling에 의해 Holmium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적출술로 발표된 이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지난 10여년간 널리 시행되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방법이다. 국내에도 2008년에 도입되어 최근 열린 대한비뇨기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여러 임상결과 발표를 통해 검증받고 있다.

문의 | 비뇨기과 02)920-5530, 5531

소화기센터 전훈재 교수, 최고 권위 국제학회 수상 최다 석권 고의의학상 수상 등 탁월한 연구업적 돋보여

[글로벌 명의]

위 내시경분야 글로벌 명의 TOP 10 선정 등 국제적으로 정평



내시경 검사중인 전훈재 교수

한국의 의학발전은 그야말로 비약적이다. 그중 국내 소화기질환분야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분야 중 하나다. 특히, 위 내시경 분야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가 배우러 올 정도로 글로벌 톱에 근접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분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고대 안암병원 소화기센터가 중심에 있다. 세계적인 명의로 손꼽히는 전훈재 교수는 이 선도적 발전을 리드하고 있는 일등공신중에 한 명이다. 지금도 창의적인 연구와 새로운 시도로 세계 의료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전훈재 교수가 최근 고대를 빛낸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고의의학상을 수상했다.

국제적 명성에 걸맞는 탁월한 연구업적과 학회활동
전훈재 교수가 2010년 1년간 국제 저명학술지에 발표한

SCI급 논문만 31편에 이른다. 2009년에는 전세계 150여 개국 1만 5천여명의 의료진이 참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와 위상을 자랑하는 국제학회인 GASTRO 2009 UEGW/WCOG에서 300개만을 선정해 시상하는 우수연재상에서 이례적으로 4개 부문 수상을 휩쓸어, 국내 최다는 물론 세계 4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학회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하였고, 현재는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 총무기획이사, 대한소화기항암학회 총무이사 등 학회 주요 보직을 맡아 국내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1년 7월 한국에서 주도하여 개최되는 제 1회 치료내시경 국제학회 준비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며 대한민국 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수년간 연속 등재된 것을 비롯해 세계적인 의학저널인 'Journal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와 'Gastroenterology' 등 10여개 세계 SCI급 저명 학술지의 편집 및 심사위원을 맡아 수백편의 세계적인 의료진들이 제출한 논문을 심사하는 등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 최초 내시경치료법 개발,
명의 선정 등 글로벌 의학의 대명사**

전훈재 교수는 10여년전부터 탁월한 연구와 진료성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며 국제적으로 정평이 났다. 1999년 내시경 분야 권위지 '헬리어의 베스트 임상과 연구'에서

위 내시경 분야 세계 최고 명의 14인에 선정되는 등 명실 상부한 글로벌 명의로서의 명성을 떨쳤다. 2002년에는 국내 최초로 캡슐내시경을 도입해 일반 내시경으로 진단이 어려웠던 원인불명의 장출혈 궤양이나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소장질환 정밀 진단 등 기여하는 등 진단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2008년에는 구강, 항문과 같은 인체의 자연개구부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복강 내로 접근해 수술하는 NOTES 수술법을 세계 최초로 조기 위암에 적용해 세계적인 우수 저널에 보고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위 중앙 내시경 절제 치료 환자가 전훈재교수 개인 시술건수만도 2,000례를 돌파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시술성공률이 95%이상에 이르는 등 미국 및 유럽 선진국의 치료성적을 월등히 뛰어넘는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이 의료기술은 2009년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술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명성으로 인해 국내 각지에서 환자들이 안암병원 소화기센터로 몰려들고 있다. 현재 전훈재 교수에게 진료받기 위해 대기중인 환자만 2,000여명에 이를 정도다. 전훈재 교수는 주로 내과적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시경을 외과적 수술 치료 도구로 발전시키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여, 국내 최초로 내시경을 활용해 뱃속 부위를 꿰매는 기구인 '연속 봉합 기구'를 개발해 관련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이상헌 교수팀, 허리디스크 新치료법 세계가 인정

[스페셜 리포트 2]

美 통증의학지 게재, 국제 학계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재활의학과 이상헌 교수

고려대 안암병원 이상헌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척추 치료 기기(L'DISQ)를 이용한 허리 디스크 탈출증 치료법이 미국 통증의학지(Pain medicine)에 게재 확정됨으로써 국제 학계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상헌 교수팀은 2010년 수술이 필요한 탈출형 디스크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신개념 척추 치료기기 L'DISQ를 통해, 수술과 절개 없이 시술바늘만 삽입하여 플라즈마 에너지로 탈출된 디스크 조직을 제거한 결과, 25명 중 22명(88%)에서 성공적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다. 환자들의 통증강도를 나타내는 평균 VAS 지표(visual analogue scale:통증의 강도를 가시화한 점수로 10점이 최고 통증)는 시술 전 7.08에서 시술 6달 이후에는 1.84로 통계적으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또한,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롤랜드 모리스 장애지표에서는 시술전 11.52 점에서 시술 6개

월후 2.68 점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시술 전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제한을 받던 환자들이 대부분 시술후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임상 결과는 여러 국,내외 의학학회에 발표되었으며, 국제 통증학술지인 PAIN MEDICINE의 승인을 받아 곧 출판예정이다. 기존의 비수술적 디스크 치료방법인 수핵성형술이나 레이저 감압술 등은 디스크의 원인병소를 직접 제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초기 돌출형 디스크 질환에만 제한적으로 적용가능 하며, 크게 탈출한 디스크질환을 대상으로한 비수술적 치료방법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금번에 개발된 척추 치료기기(L'DISQ)는 시술바늘의 방향제어기능을 통해 디스크 내부의 원인병소에 직접 접촉하여 제거하는 기능을 구현하여, 기존의 비수술적 디스크 치료방법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웠던 크게 탈출한 디스크까지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탈출형 디스크 질환의 치료법으로 제시되는 수술적 치료는 긴 수술시간과 회복기간, 뼈와 근육의 손상, 신경과 혈관의 유착, 인접한 추간판에 미치는 만성적인 압박 및 장기적으로 디스크 관절에 퇴행성 변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에 미국에서 개발된 플라즈마 에너지 비수술적 치료 기기가 있었지만 탈출된 디스크를 직접 제거 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압력만 감소시켜 그 효과가 낮았다. 하지만, 이 교수팀이 새로이 개발한 L'DISQ를 이용한 시술법은 1mm 두께의 가는 관을 피부를 통해 삽입하고, 세계최초로 개발된 시술관의 방향제어 기능을 이용해 관의 위치를 디스크 병소에 최적합한 위치로 접근시켜 관 끝에서 방출돼 나오는 고주파 플라즈마 에너지로 디스크의 원인병소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주변조직에 대한 손상없이 치료효과가 우수할 뿐 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각종 합병증 및 장기적 예후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의 | 재활의학과 02)920-6854



시술중인 이상헌 교수

병원소식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



안암병원(원장 김창덕)이 지역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안암병원 김창덕 원장, 권병창 경영관리실장, 이은숙 간호부장은 21일 오후 성북구청을 찾아 교직원들의 급여 끝전성금으로 마련한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도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안암병원의 사랑나눔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안암병원

원 교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성금은 희망 2011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북구 내 소년소녀가장과 홀몸노인, 저소득 특새계층 등에 지원된다. 김창덕 원장은 “조그마한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안암병원은 지난해 11월 성북구청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내 고장 사랑운동’에도 동참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진료 및 건강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간호부 사랑의 행복 온도계 50℃ ‘훈훈’



간호부(부장 이은숙) 외래 친절 향상 위원회에서는 2011년 1월 19일 불우 이웃 돕기 행사의 일환으로 하루 한 끼 절식을 통해 모금한 성금을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소인 라파엘 클리닉에 전달하였다. 라파엘 클리닉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료봉사단체로 국경을 넘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이웃들을 위한 의료지원 활동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곳이다. 성금모금은 작년 6월부터 진행하였고, 작은 정성이 모여 모금된 성금 50만원을 전달하며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으로 아름다운 2011년을 맞이하였다. 이은숙 간호부장은 “한 사람의 작은 나눔이 모여 외롭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사랑과 나눔의 행복 온도를 계속 올려 훈훈한 정(情)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대의료원, ‘하버드스타일 연구중심’으로 간다



의료원(의무부총장 손창성)이 최근 10년간 333%의 경이적인 논문수 증가를 보이며 ‘하버드스타일 연구중심 의료기관’으로의 힘찬 뜻을 올린 가운데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고려대의료원은 1월 20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건과학대(학장 김용철) 정의관 7층에서 ‘제 1회 의학-보건과학 리서치 페스티벌’을 개최해 8개의 연제와 150여개의 연구

포스터가 발표됐다. 이번 리서치 페스티벌에서는 ▲환경보건 분야에서의 실내환경 융합 기술개발 방향 ▲생체의공학과에서 연구되는 최신 기술들 ▲보건의료 R&D 및 대학의 역할 ▲의대 교수들의 연구실태 ▲연구중심병원의 개념 등의 다양한 연제가 발표됐다. 손창성 의무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의과대학과 보건과학대학이 세계적인 의학 및 보건연구 부문의 메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의학 및 보건과학의 실용적 연구성과를 견인해 줄 기초과학과 생명공학, 통신공학 등을 적용한 다각적이고 융합적인 연구가 병행되어 큰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부정맥센터, 환자로부터 기부 잇따라



부정맥센터(센터장 김영훈)가 환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 안암병원 부정맥센터 김영훈 교수로부터 진료를 받아 온 신흥기공시화공장 송홍섭 대표가 부정맥 연구에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부했다. 송 대표는 2004년 부정맥으로 쓰러져 큰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당시 긴급수술과 꾸준한 치료로 지금은 건강을 완

전히 회복한 상태로, 의료진과 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기부금 전달이 이뤄졌다. 송홍섭 대표는 “제게 고대병원과 김영훈 교수님은 생명의 은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맥에 대한 고통과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 미려하나마 부정맥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는 지난해 10월에도 부정맥 환자였던 조중형 웅진그룹 고문으로부터 5억원을 기부받는 등 환자로부터 기부가 잇따라 부정맥 연구에 활기를 띄고 있다.

QI & CP 활동으로 국제적 병원의 품격을 만들어 간다



안암병원(원장 김창덕)은 지난 2월 8일(화) 안암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10 QI 및 CP경진대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1년간 각 부서별 QI활동에 대한 구연발표, 포스터 발표 및 전시, CP(Critical Pathway)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참가자들의 열띤 경쟁으로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여줬다. 특히 각 부서에서 진행된 2010년 QI 활동들은 환자의 간호 지침에서부터 의무기록, 환자만족도, 감염관리, 환자 안전, 영양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어 병원의 질 관리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특히 CP발표에서는 질병별로 환자의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어떤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환자의 진료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선 방안까지 논의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안암병원(원장 김창덕)은 지난 2월 8일(화) 안암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10 QI 및 CP경진대회’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1년간 각 부서별 QI활동에 대한 구연발표, 포스터 발표 및 전시, CP(Critical Pathway)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참가자들의 열띤 경쟁으로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해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여줬다. 특히 각 부서에서 진행된 2010년 QI 활동들은 환자의 간호 지침에서부터 의무기록, 환자만족도, 감염관리, 환자 안전, 영양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어 병원의 질 관리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특히 CP발표에서는 질병별로 환자의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어떤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연구와 함께 환자의 진료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선 방안까지 논의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구연발표 부문			포스터발표 부문			CP 부문		
No	팀명	상명	No	팀명	상명	No	팀명	상명
1	의료정보팀	대상	1	NR, NICU	우수상	1	이비인후과	대상
2	간호부 질업무향상위원회	최우수상	2	약제팀	장려상	2	정형외과	최우수상
3	보험심사팀	우수상	3	간호부 업무질향상위원회	장려상	3	산부인과	우수상
4	마취통증의학과	우수상	4	SICU, 영양지원팀	장려상	4	상부위장관외과	우수상
5	간호부외래 QI위원회	장려상	5	54병동	장려상			
6	75병동	장려상	6	63병동	장려상			
7	영상의학과	장려상	7	73병동	장려상			
8	중앙공급실	장려상	8	74병동	장려상			

고대의대교우회 새 교우회장 취임, 김정묵 회장



김정묵 영등포 김정묵내과의원장(고대의대 30회)이 최근 '제4회 고대의대의 밤' 행사에서 새 회장에 취임했다. 제30대 교우

회장으로 취임한 김정묵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교우회장이란 직책을 맡겨주신 교우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가족 같은 교우회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고 말했다.

이어 “△7천 교우의 단합을 위한 지부활성화 △여자교우회와의 긴밀한 협조 △의료원의 비전 2020 목표달성을 위해 교우들의 힘을 결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병원소식

‘함께하는 금연으로 가족사랑 환자사랑’



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이 수여됐다. 금연캠페인 이후 실제 담배를 끊은 교직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병원외부에는 내원객들이 간간히 흡연하는 풍경도 이제 전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병원환경이 많이 변화했다. 한 교직원은 “저 뿐만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챙기려고 금연을 시작했다. 매년 3일도 채 못 버텼었는데, 지금은 금연에 동참한 동료직원들과 함께 3개월째 금연에 성공하고 있다”면서, “병원에서 환자분을 대할 때는 물론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활기를 찾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지나해 10월 병원 전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선포식을 개최한 안암병원은 올해 첫 금연캠페인의 일환으로 그린 안암병원 금연포스터와 표어 공모전을 열고 이에 대한 포상을 20일 오전 8시 병원장실에서 실시했다. 수많은 교직원들이 금연표어와 포스터에 공모한 가운데 표어부문에서는 ‘함께하는 금연으로 가족사랑 환자사랑’이, 포스터 부문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 개울 물 다 흐리네’가 최우수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수상

간호사의 어메이징 초콜릿 선물



“달콤한 사랑 듬뿍 담아 소중한 당신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간호사들이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직접 준비한 깜짝선물로 병동환자들에게 초콜릿보다 달콤한 사랑을 전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간호부(부장 이은숙)는 2월 14일 병동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쾌유기원 메세지와 함께 간호사들이 손수 포장한 초콜릿 꾸러미를 선물했다. 한 병동 환자는 “항상 친절히 대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써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간호부, 제 6차 상처·장루 간호과정 개최



안암병원 간호부는 2월 15일 오전 9시에 안암병원 중회의실에서 ‘제 6차 상처·장루 간호과정’ 개최식을 거행했다.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총 8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상처·장루 간호과정에는 원내외 간호사 등 총 7개 기관에서 16명이 참가, 현장에서의 상처 드레싱과 장루관리에 이르기까지 상처 및 장루관리의 원리와 실습에 대해 서희원(안암병원), 임

승화(서울대병원) 상처장루 전문간호사와 백은선(안산병원) 교육수간호사, 이지혜(안암병원) 영양사의 심도있고 전문적인 간호교육을 받게 된다. 이은숙 간호부장은 “교육생 여러분들이 상처장루 분야의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 내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암병원 간호부는 전문간호사 양성 교육을 목표로 중환자간호 상급과정 및 투석간호 중급과정을 개설하는 한편, 간호사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 학술대회, 특강 등 각종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수준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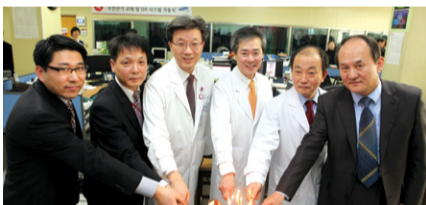
홍보대사에 성시경 씨 위촉



의료원은 1월 14일 오후 2시 의무부총장실에서 가수 성시경 씨를 ‘고려대의료원 홍보대사’에 위촉했다. 손창성 의무부총장

은 “성시경 씨는 지난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건실한 청년이고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대한 애정도 각별한 것으로 알고있다. 건강한 이미지로 잘 알려진 성시경 씨를 홍보대사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성시경 씨는 앞으로 고려대의료원이 주최하는 각종 대외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슈퍼서버’ 갈아입고 미래병원 도약



의료원이 지난 1월 31일 국내 의료기관으로는 최고 성능을 보이는 슈퍼 통합서버를 도입했다. 의료계 최초로 HP의 신규 UNIX 서버 슈퍼돔 2(Superdome2)를 도입한 고려대의료원은 각종 의료데이터의 안정성과 속도 등을 높여 진료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실제 응답시간을 기존에 비해 평균 5배 향상시킨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다. 또한, 새로 도입된 통합서버는 업그레이드 된 서버보안, DB모니터링툴, NMS(네트워크관리시스템), EMS(전사적관제시스템), SMS(시스템관리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만에 하나 일어날수 있는 장애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춘 국내 최초로통합 의료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생명나눔의 벅찬 감동, 장기/조직기증 추모음악회



장기이식센터(센터장 김동식)는 사단법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와 공동으로 2월 15일 안암병원 8층 대강당에 ‘네버엔딩 스토리,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제로 장기 및 조직 기증 추모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모음악회는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2주기에 맞춰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이타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기증자와 가족은 물론 소중한 생명나눔으로 새 인생을 살고 있는 수혜자 및 환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증자 가족과 수여자의 생생한 생명나눔의 순간들과 감사함이 전해지면서 참석자 모두에게 벅찬 감동과 뭉클함을 선사했다. 지난달말 안암병원에서 심장이식에 성공한 몽골인 지시그바타르(55세)씨는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 더 없이 기쁘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나 연신 허리를 굽히고 감사함을 표했다. 한 기증자 가족은 “제 아버님의 유지를 따르기는 했지만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며 당시를 회고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장기기증으로 새 삶을 나눈 아버님이 한없이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한 수혜자는 “그 분의 숭고한 정신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다. 기증자의 삶과 인생의 일부라 생각하고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청소년들로 구성된 푸른초장 브라스밴드의 활기 넘치는 공연과 CCM 가수 소향의 미니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져 환자와 가족들을 위로했다. 김창덕 안암병원장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망이 아닌 새 희망으로 여러분이 나누신 큰 사랑과 생명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장기 기증자들을 추모함은 물론 장기기증의 진정성과 숭고한 의미를 세상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커다란 통로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최초로 통합의학센터 개소

[병원생활팁]

심장과 뇌질환, 통증질환, 학습장애, 아토피 등을 통합의학적 신 개념으로 치료



안암병원이 지난 2월 15일 오후3시 통합의학센터(센터장 이성재)를 국내최초로 개소했다. 통합의학센터는 현대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기본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효과와 안정성이 증명된 보완요법을 병행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진료센터이다.

중합의학 분야 개척하는 안암병원

센터는 통합의학의 대가 이성재 교수와 통합의학 개업의로서 최다 임상경험을 가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왕림박사가 맡았으며 내과, 신경외과 및 각과 전문의와 협진체계를 갖췄다. 또한, 보건과학, 건강심리학을 전공한 연구진이 연구와 진료를 지원한다. 전문의료인 진료영역은 심장과 뇌질환, 만성통증(관절염, 요통), 학습장애, 만성피로, 갱년기, 피부(아토피) 환자를 위한 통합의학(현대의학+한의학+보완대체요법)적 치료와 개인별 헬스컨설팅도 한다. 교육 치료로서는, 만성질환의 예방, 재활 및 치료를 위해 HIF(Healing in Forest) 숲 치유프로그램과 SMART(Stress Management And Relaxation Techniques) 생활습관개선 치유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교육프로그램 안내

- 1) 스마트(SMART, Stress Management And Relaxation Tech) 프로그램
- 2) 히프(HIF, Healing In Forest) 프로그램

스마트프로그램과 히프프로그램은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한 비약물적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고 동시에 건강하게 살기위해 전문가로부터 배우고 익히는 교육치료입니다.

프로그램 내용

- ① 스트레스완화요법
- ② 단계적 근육이완요법
- ③ 자율신경계 이완요법
- ④ 표현예술치료
- ⑤ 건강심리치료

SMART 프로그램

- 매주 1번 2시간×4주
- 교육프로그램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

HIF 숲 치유 프로그램

4박5일×1번(국립자연휴양림체류)

의학적으로 검증된 통합의학 진료

통합의학분야는 독일을 비롯하여 미국 하버드, 스탠포드, 존스홉킨스, 엠디앤더슨 암센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에서는 이미 개설하여 진료하고 있다. 이성재 교수는 “국내에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과학적 근거가 중심이 된 통합의학은 환자에게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전인적 건강을 제공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임상 의사들과의 협진은 물론 이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보완통합의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성재 교수는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등과 현재 진행 중인 통합의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중이다.

상담 및 문의 | 02)920-6930, 6931

통합의학센터 협진

이왕림 : 고대의대, 의학박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장태호 : 독일 파이프치히의대, 의학박사, 내과전문의
박태환 : 고대의대, 신경외과 전문의

통합의학센터 연구진

함용운 : 고대의료원 보건과학대학 교수
성수원 : 고대의료원 보건과학대학 교수
김범 : 중국 천진중의약대학, 의학박사
이용갑 : 연세대, 독일 베를린자유대, 사회학박사
안희영 : 서울불대 심리치유학과 교수, 교육학박사



센터장 이성재 교수

독일베를린프라이대학 의대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차플힐대학 소아과
독일 괴팅겐, 게욱 아우구스트대학 소아심장박사
독일 마부르크대학 소아심장박사/소아심장전문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통합의학센터장

나의 작품은 내 추억들이다. -샤갈전 (Chagall; Magician of Color)

[문화의 향기]



“도시위에서” (1914-1918)

시인, 20세기 가장 뛰어난 색채 화가 등 샤갈을 칭하는 모든 말에서 그의 뛰어난 색채감을 빼 놓을 수 없다. 전시회의 포스터를 장식하고 있는 ‘도시위에서’ 한 작품만 보아도 그 색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된다. 말간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투명한 회색에서 피어나는 청색, 녹색, 보라색들이 눈부시게 영롱하다. 어떻게 백 년 전에 이렇게 세련되고 아름다운 색을 낼 수 있는 지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작품에 녹아있는 맑은 색채만큼이나 투명한 그의 추억들이었다. 러시아 비테프스크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러시아 혁명과 세계대전을 겪으며 프랑스로

그림 전시회일 뿐인데 마치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온 것처럼 그 이야기 속에서 깨어나기가 힘들었다. 추운 겨울,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마르크 샤갈(1887-1985)의 전시회에 다녀왔다.

그 무엇으로 형언할 수 없는 색파의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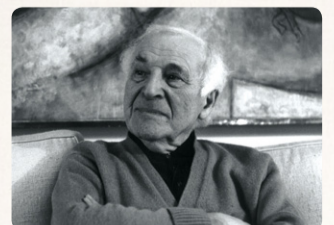
색채의 마술사, 색채의

망명하는 등 굴곡진 삶을 살았지만, 그의 모든 작품들은 어린시절을 보낸 비테프스크로부터 시작한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꽃과 동물, 시골 풍경, 신부와 연인 등을 자신의 환상과 융합해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로 재해석했다. 마치 꿈에서 막 빠져나온 듯한 장면들은 한 작품 한 작품 지날 때마다 아름다운 시를 읽는 기분을 선사한다.

국내 두번째 전시회 볼거리 풍성

국내미술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2004년 첫 샤갈 전시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계 30여개 미술관에서 임대해온 작품의 목록이 6년 전보다 풍성해졌다. 1950년대 이후 샤갈의 말기 작품 중심이던 첫 전시와 달리, 이번 전시는 1910~1922년대 러시아 시절 샤갈의 청년기 작품들이 대거 전시 중이다. 6년전엔 일부만 공개됐던 모스크바의 유대인 예술극장 장식화도 현재 남아 있는 7점이 모두 전시 중이다. 그리스 고전 ‘디프니스와 클로에, 프랑스’ 라퐁텐 우화의 삽화용으로 제작한 종이작품도 흥미롭다.

전체적인 감상평은 푸른 물이 똑똑 떨어질 만큼 아름답다는 것이다. 그러나 눈부신 색감 뒤에 숨어서 속살거리는 샤갈의 인생, 사랑, 시련, 어린시절의 이야기를 듣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의 전시회와는 다르게 발을 옮길 때마다 마치 어린 샤갈이 뒤에 다가와 쉽 없이 추억을 들려주는 듯했다. 투명한 물빛 아름다움을 선사할 '샤갈 (Chagall; Magician of Color)전' 은 3월 27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계속된다.



글 | 안암병원 원내기자 조규은(종합건강검진센터)

만성적 허리통증, 빠른 치료가 가장 최우선

[최신의학정보]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 측만증등 원인적 치료 이루어져야

허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체중 하나이다. 특히 걸어 다니고 이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체 부위 중 하나이다. 그만큼 중요한 허리이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허리 통증이다. 또한 추간판탈출증이라고 불리는 허리디스크, 노화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등 다양한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허리디스크의 경우에는 노화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장시간 서 있거나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오래하는 경우에도 자칫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통증, 허리디스크

추간판탈출증은 많은 사람들이 허리디스크로 더 많이 알고 있는 질병이다. 추간판이란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섬유성 연골을 말한다. 추간판탈출증은 척추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추간판이 지속적인 압력이나 순간적인 힘에 의해 서 추간판이 옆으로 밀려나오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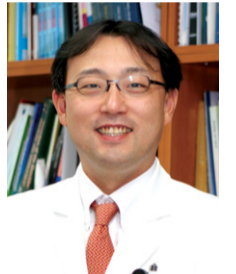
간판탈출증은 다른 허리 질병과 다르게 10대나 20대 초반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선 증상을 발생시킨다. 추간판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허리의 통증과 신경을 건드려 발생하는 다리가 아프고 저린 방사통이 대표적이다. 또 엉치 또는 허벅지, 종아리가 저리거나 아프고, 허반신의 어느 부분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앉았을 때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드문 경우기는 하지만 추간판이 심하게 탈출되는 경우 대소변 기능이나 성기능 장애를 호소할 수도 있으므로 질병에 대한 빠른 진단과 치료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허리에 무리주면 발병, 전문적인 치료받아야

허리디스크의 대표적인 원인은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이다. 즉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허리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추간판이 일시적인 압력에 의해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교통사고와 같이 외부에서의 충격 역시 허리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압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오랜 동안 목이나 허리에 무리를 줄 경우에도 서서히 추간판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즉 장시간 서 있거나 올바르게 못한 자세로 오랫동안 생활한다면 결국에는 허리디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허리건강, 젊어서부터 지켜야

허리건강은 한번 잃으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이 쉽지 않아 미리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허리디스크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와 무리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허리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지름길일 것이다. 그래야만 디스크 뿐만 아니라 척추측만증과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노화로 인한 척추 질병 역시 늦출 수 있다. 만약 오래 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세는 물론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트레칭은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칫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압력을 풀어줌으로써 허리에 무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조심해야 하고, 운동 역시 과하게 하는 것 보다는 허리에 부담없는 정도로 해야 한다. 허리는 중요한 만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으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잃지 않고 지킨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박시영 교수

김연아, 전원주, 노홍철씨 모두 제 손을 거쳐갔죠!

[이부서이사람]

안암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 홍현희 간호사가 그리는 건강스토리~



종합건강진단센터 홍현희 간호사

고려대 안암병원 검진센터에 들어 서면 늘 환하게 고객을 맞이하는 교직원이다. 비록 정장스타일의 업무복을 입고 있지만 수검자 관리 및 예약안내 업무를 하고 있는 엄연한 간호사다. 홍현희 간호사. 검진센터에서만 7년 이상 근무를 한지라 그녀를 거쳐간 대한민국 국보급스타들이 즐비하다.

하나금융 지주 김승유 회장, 국제행사재단 송상현 소장,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사진작가 김중만 씨를 비롯해서 텔런트 조형기, 전원주, 강지환, 이태곤, 박지영, 가수 채연, 김상희, 에픽하이-미쓰라 진, 개그맨 박준형, 백재현, 김지혜, 신봉선, 방송인 정은아, 노홍철씨 등이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간 유명인들이다. 홍

현희 간호사는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가장 기억이 남는다고 말한다. “약 2년전에 당시 많은 취재진을 피해 007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건강검진이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는데 1일 경호원이 된 듯한 느낌이었다. 최단 거리 이동과 신속한 검사를 위해 전날 2~3번의 시뮬레이션을 할 정도로 철저한 대비를 했다. 검사 안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유명 선수라기 보다는, 예쁘고 수줍어 하는 스무살 여대생 모습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 라고 김연아 선수를 회상했다.

최근에는 송상현 국제행사재단 소장이 방문해 건강검진을 받았다. 서울대 법대 교수, 하버드 로스쿨 교수, 변호사 등을 거쳐 아시아 첫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소장

에 이른 국가원수급 인물이다. 송 소장은 안암병원 건강진단센터에서 2년 간격으로 주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는데, 휴가차 한국을 방문해 이번에도 안암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홍현희 간호사는 “법조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딱딱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너무 부드럽고 자상한 모습이었다”며 “건강검진 받으시는 동안 얼굴에 늘 웃음이 가득하셨던 분으로 기억한다. 또 결과 상담 후 사진 촬영을 제안했을때 너무 흡족하게 응해 주셨고 먼저 손을 건내어 다정하게 잡고 찍는 포즈를 취해 주셨다”며 송 소장을 기억했다.

홍 간호사에게 고객을 대할 때 마음가짐을 묻자 ‘환자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뢰’라고 강조한다. “본원 건강진단센터를 선택해 주신 고객이 본인의 건강에 대해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고, 지불한 만큼의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홍현희 간호사는 어떠한 사소한 질문에도 답할 수 있도록 검사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 경청, 고객의 요구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수시로 고객과 많은 대화를 하는 편이다.

홍현희 간호사의 꿈은 간호사와 고객의 협력관계를 통해 최종 목표인 고객의 지속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평생 건강 지킴이’가 되는게 바람이다. 현대의학이 첨단화 되어 건강검진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간중심의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들과 평생 건강의 동반자로 함께하고픈 홍 간호사를 응원해본다. 오늘도 따뜻하고 밝게 고객을 맞이하는 홍현희 간호사가 있어 안암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가 우리나라 건강의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는듯하다.



건강검진 받고 있는 김연아 선수



건강검진 후 기념촬영. 송상현 국제형사재단 소장(오른쪽)

